

육계산업 보호 위한 경북 육계인 한마음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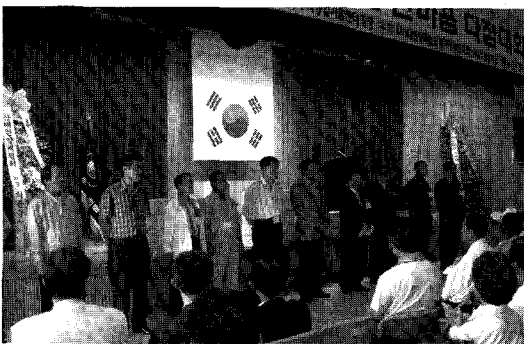


5월 27일 경북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본회 대구경북도지회 주최와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양계농협 후원으로 경북지역 육계인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졌다.

세미나 시간에는 조병임 농림부 사무관이 정부의 양계관련 정책을, 김순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박사가 하절기 육계질병 및 방역관리에 대하여 각각 강의하였다.



300여명의 육계인들은 결의서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정닭고기 생산에 노력, 양계농가 축산행정 지원 확대 요구, 계약사육농가 협의체 구성 및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결의서를 낭독하고 오정길 대구경북지회장에 전달되었다).



◀ 대구경북도지회에 회원들에게 전국 육계지부창 및 이사를 육계인에게 소개하고 있다.



▲ 본회 지부장단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계열업체 농가협의회 등이 긴급회의를 갖고 향후 육계계열화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경북 육계업 발전에 공로가 큰 장재성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김세호(상주시청), 신홍렬(의성군청), 김식윤(안동시청), 강보모(칠곡군청), 김재원(구미시청), 정정대(김천시청)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육계인 친선 도모 부산경남 육계인 단합 대회

6월 8일에는 거제시 금세기관 광목장에서 부산경남지역 육계인 단합대회를 가졌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날행사는 3년만에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육계인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 황수연 지회장(좌)의 축사와 손종현 고문(우)의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김영근 부산경남지회 육계분과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매년 육계인 대회를 통하여 육계인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으며, 황수연 부산경남지회장은 육계인 대회를 계기로 올 가을에는 부산경남지역 양계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종현 고문이 육계발전을 위한 건배를 선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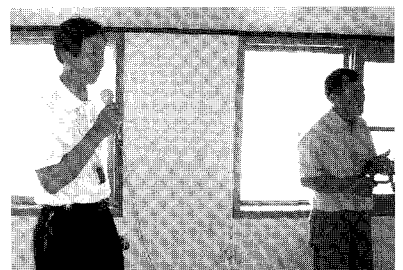
기념행사를 마친 후 육계인들은 율놀이와 노래자랑으로 고된 일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번 행사를 위하여 거제시청 축산계장(배혁도), 통영축협 전무(허덕영), 거제축협 전무(조행제), 농협사료함안공장장(이정규), 한려식품사장(전복동)이 참석하였고, 이장근 거제육계지부장이 행사 진행을 도왔다.



▲ 이장근 거제시 육계지부장



▲ 율놀이와 노래자랑으로 화합을 다졌다.



▲ 손종현 고문(우)의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